

도내 학교폭력 피해 응답 전년비 0.2%p ↓

전북자치도교육청 학폭 실태 전수조사 결과
응답학생 9만7283명 중 2.6%가 "피해경험 있다"
전문지원기관 확대 등 피해학생 지원 체계 확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진행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 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실시했으며, 전북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68.6%인 9만 7,283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피해·가해·목격 경험 문항 등으로,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한 2.6%(2,509명)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벌 중심 및 학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해 방관자를 방자자로 전환하는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강화 △신종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

호를 위해 △사안발생 초기 보호 체계 강화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및 자체 제작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배부 등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전년 대비 피해응답률이 소폭 감소한 것 같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교-대학 연계 2학기 주말 강좌, 체험·실습 중심 편성

과학·공학·보건·인문·예술 등 단위 학교서 개설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연계
전북대·군산대·전주대 등 도내 6개 대학 참여 16강좌 320명 학생 모집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고교-대학 연계 2학기 주말 강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과학·공학·보건·인문·예술 등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2학기 주말 강좌에는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등 도내 6개 대학이 참여하며, 16강좌에 320명의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주요 강좌로는 △군산대 재미있는 반도체 이야기 △우석대 알기쉬운 인

공지는 활용법 등 2강좌 △원광대 고교생 한의학 교육과정 체험 등 4강좌 △전북대 현대 생명과학 실험탐구실 등 4강좌 △전주교대 교육학에 대한 이해 △전주대=아두이노 실습을 통한 전기전자의 이해 등 4강좌가 있다.

수업은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총 2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동교육과정 플랫폼(https://jprecredit.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 1·2학년은 우선 선발하며, 신청 학생이 적으면 3학년도 포함한다. 신

청 결과는 10월 10일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1학기 주말 강좌', '학교로 찾아가는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 '비리기는 연구실', '창의인재 과학이카데미' 등 87개 강좌를 운영, 1,129명의 학생을 참여시켰다.

유효선 공동교육과정장은 "고교-대학 연계 주말 강좌는 대학의 심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적합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이라면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공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4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참가

공직 꿈꾸는 취업준비생 대상 공직 채용 정보 제공
합격생이 직접 상담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진행된 공직박람회는 공직을 꿈꾸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공직 채용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행사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정보, 직무관련 상담,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등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합격생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합격 노하우, 면접 방법, 공직생활에 대한 궁금증, 신규공무원의 자세 및 경험담 등을 제공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주관으로 열리는 채용설명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교실속 학습습관 형성 30일 프로젝트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올바른 학습습관 체화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실속 학습습관형성 30일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실천하고 싶은 학습습관 행동을 정하고,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습습관을 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중등교사 34명에 대한 학습코칭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심화과정(24시간)을 진행했다.

이미 3월부터 2023년 학습코칭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심화과정 이수자 중 26명의 교사가 '교실속 학습습관형성 60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학습습관형성 60일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주완산고 이현환 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고 성적향상은 물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26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직무연수 심화과정 이수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습관형성 30일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어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예산사용 방침을 안내했다. 특히 필수과제로 지정된 학습역량 함양과 습관형성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 앱 '올라 시연도' 선보였다.

/장은성 기자

"SRF 소각장, 전주 학생·주민 건강 위협"

전북교총 "소각장 5km 이내 전주 전체가 위험권"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팔복동에 들어서는 SRF 소각장이 관내 학생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각장 유해물질 1차 영향권인 반경 2.5km 내에는 770m 거리로 가장 가까운 송원초를 포함해 12개의 초등학교 학생 7,099명과, 전주화정중 등 6개의 중학교 학생 3,354명, 그리고 전라고 등 5개 고등학교 학생 3,923명이 재학 중이라며, 이 학교들은 소각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건강 및 학습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준영 회장은 "SRF 소각장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다양으로 발생시켜 전주 시민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설"이라며 "전주시는 분지형태의 지형으로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의 배출이 어려운 만큼 영향권 내 학교의 교육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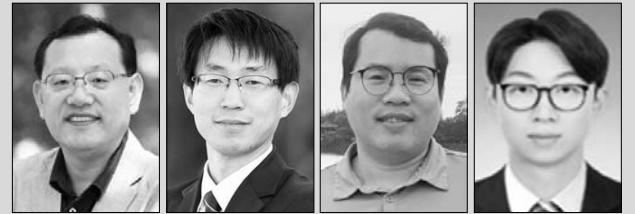
이와 "청주와 울산 등에서 주민 건강 문제가 발생했음을 기억하고, 전주시와 정부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세계 최고 효율 '아연-공기전지' 개발

전북대 이종희 교수팀... 높은 전력 밀도, 800시간 이상 우수한 총·방전 내구성 가져

전북대학교 이종희 교수팀(나노융합공학과)이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진 차세대 고효율 아연-공기전지를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종희 교수 김남훈 교수 트란듀이탄 교수 남성용 석사과정생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종희 교수와 김남훈 교수, 트란듀이탄 교수, 남성용 석사과정 학생이 참여한 연구팀은 고가의 귀금속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양극능성 산소 전기촉매를 개발해 아연-공기전지에 적용했다.

연구팀은 부분적으로 바리시킴 금속화물 엠벤(MBene)을 제작, 이 위에 철 프탈로시아닌(FeMc) 분자를 균일하게 고정화해 효율적인 공기 음극 전극(FeMc-MoAl₂-xB)을 구현했다.

3단계 공정을 통해 제작한 이 전극은 독특한 전자 상태를 형성해 산소반응 속도와 산소환원반응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극 표면에서 향상된 산소

반응 속도로 인해 개발된 아연-공기전지는 168 mW/cm²의 높은 피크 전력밀도를 나타내며, 고농도 전해질 상에서도 800시간 이상의 우수한 총·방전 내구성을 보였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현재 아연-공기전지 산업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우수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짧은 충전시간과 제작비용 감소라는 어려운 난제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 차세대 아연-공기전지 산업에서 초고효율 고내구성 산소 전기촉매 개발에 관한 획기적인 기술적 방안을 제시해 관련 산업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 나노융합공학과 남성용 석사과정생이 주도했으며, 에너지 소재분야의 세계적 최우수 학술지인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IF: 32.4, JCR: 상위 0.5%)에 게재됐다.

이종희 교수는 "이번 연구로 개발된 고성능 아연-공기전지 음극소재는 기존 상업용 소재보다 제작비용이 약 60배 저렴해 공기-아연전지의 실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식물균류병학 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다.

전북대 연구 환경 안전성 '재입증'

식물균류병학 실험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전북대학교 식물균류병학 실험실(책임자 최인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은 지난해 원예생명공학 실험실에 이은 두 번째로, 전북대의 연구 환경 안전성이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해 연구실 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식물균류병학 실험실은 식물병을 유발하는 균류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생물체 유전자 및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높은 수준

의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연구실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뉴얼 제작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 연구실 정밀 점검 및 수시점검, 유해 요소 발굴 및 개선, 안전 교육 및 훈련 등을 전개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연구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환경 조성을 통해 더 많은 연구실이 안전관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는 현재 5개의 연구실이 2024년 인증을 목표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Self-Mapping
공유 day' 이벤트 개최

우석대학교 교육혁신본부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5~26일 이틀간 문화관 일원에서 'Self-Mapping 공유 day-스탬프 모아 모아!'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elf-Mapping 공유 Day'는 매주 수요일 5·6교시 교육혁신본부와 혁신사업단·대학일자리본부·LINC 3.0 사업단 등에서 매 학기 150여 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해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벤트는 재학생들이 교내 비교과 운영 부서를 탐방하고, 체험활동에 대한 스탬프를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주어졌다.

김성희 교육혁신본부장은 "다양한 비교과 경험은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에 집중해 비관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나아가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는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기전대, 학과 맞춤형
3STEP 취업마스터 프로그램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4년 학과 맞춤형 3-STEP 취업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계별 학과 맞춤형 취업전략 수립을 목표로 재학생의 체계적 취업역량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사전신청을 통해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응급구조과, 치유농업과 외 다수 학과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학과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한 '1단계 입사지원서 및 면접 특강', '2단계 자기소개서 및 면접 1:1 밀착 컨설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컨설턴트와의 연계를 통한 '3단계 후속 심화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센터장은 "학과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일장신대 총장(서리) 인준 부결

교수협의회, 예장 통합 109회기 총회 열고 부결

한일장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열린 예장 통합 109회기 총회에서 배성찬 총장(서리)의 인준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배총장 서리는 2023년 12월 5일 이사회에서 선출됐지만, 교단총회에서 총대들의 투표를 통해 이를 인준하지 않았다.

이에 총장 인준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총 1,037명의 투표자 중 찬성 329표, 반대 708표(68.3%)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인준 부결로 한일장신대

학교 이사회는 새로운 총장을 선출해야 하며, 내년 총회에서 다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배성찬 총장(서리) 인준 부결 사태는 이사회 독립적 결정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관의 역할을 재확인시켰다"면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회는 이러한 정관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고, 총회 인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